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에 ‘전력기술교육원’ 설립

에너지 주권시대 열어갈 전력 기술인재 양성 본격화
전력설비분야 교육 시작…내년부터 600명 인력 양성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4일 오후 전남 나주에 ‘전력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미래 전력 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은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과 전력·에너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에너지 수도’로 불리는 나주의 산업 기반과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 있는 입지를 바탕으로, 전력계통 운영 및 제어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개원식에는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윤병태 나주시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재남 나주시의장, 한전·전력거래소 등 주요 공기업과 에너지

밸리 입주기업 관계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해 전력기술교육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전력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를 함께했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총사업비 236억원과 장비비 70억원을 투입해 1만5764㎡ 부지에 연면적 5050㎡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됐다. 교육원 2층에는 전력설비과, 3층에는 신재생에너지과와 전기소방과가 위치한다. 전력수배전반 전체 구조와 운영원리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전력IT수배전람(LAB)을 비롯해 실제 산업현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실습 환경과 강의실을 갖췄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올해 하반기 전력설비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600명의 전력설비·신재생에너지·전기소방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한국폴리텍대학은 4일 전남 나주에 ‘전력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미래 전력 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을 확대해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력기술 전문가’ 배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전력기술 교육원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전력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전력망 안정성과 효율화를 책임질 차세대 전력기술 인재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나주=조한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군과 흥양농협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현지 기업 (주)간코쿠 노리 재팬 (KANKOKU NORI JAPAN) 과 수출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했다.

‘프리미엄 고흥 쌀’ 일본 시장 공략한다

고흥군-흥양농협-간코쿠 노리 재팬, 수출 확대 MOU 체결

고흥군이 일본 시장을 무대로 프리미엄 쌀 수출에 본격 나섰다.

4일 고흥군과 흥양농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기업 (주)간코쿠 노리 재팬 (KANKOKU NORI JAPAN) 과 수출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고흥 쌀을 비롯한 다양한 농수산물들을 총 200만 달러 규모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간코쿠 노리 재팬은 일본 대표 소포밀 둔기호테와 GC Japan 등과 협력해 10개국 2만여 매장에 납품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고흥 쌀이 이유통망에 본격 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흥 쌀이 일본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본 현지 반응도 긍정적이다. 협약식과 함

께 열린 도쿄 신주쿠 한국 유통매장 홍보 행사에서는 고흥 쌀 500g 증정 이벤트가 진행됐다. 소비자들은 ‘쌀알이 찰지고 맛있다’, ‘일본에서 접하기 힘든 품질’이라며 호평했다.

고흥군 대표단은 일본 현지 슈퍼마켓을 찾아 진열 상태와 판매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인근 음식점에서는 고흥 쌀로 지은 비빔밥과 김밥을 시작하며 활용성을 점검했다.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은 “고흥 쌀의 우수성을 일본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고, 간코쿠 노리 재팬 측은 “현지 유통망과 소비자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 향후 수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고흥 쌀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쌀을 선두로 농수산물 전반의 브랜드 신뢰도와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전남도새마을회는 4일 신안 입자면 대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청정바다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전남도새마을회, 청정바다 정화활동 전개

신안 대광해수욕장서…해양쓰레기 50t 수거

전남도새마을회는 4일 신안 입자면 대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청정바다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목포,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암, 무안, 신안 등 8개 시·군 새마을회원과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장화, 장갑, 집게 등을 착용하고 해안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과 해양쓰레기 약 50t을 수거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실현에 힘을 모았다.

전남도새마을회는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해

양 생물이 건강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청정 이미지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나아가 전남 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전남의 바다와 섬을 지켜나가기 위해 도민과 함께 정화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달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육상연맹, 초등 육상 꿈나무 ‘응원’

광주시육상연맹이 빛고을 초등 육상 꿈나무들의 자기진작을 위해 육상학교 격려방문을 실시했다.

이정형 광주시육상연맹 부회장(무지개약국 대표), 김재다 전무이사, 오진욱 총무이사 등 광주시육상연맹 임원진들은 4일 지역 내 초등부 육상 육상학교인 빛고을초, 수문초, 송정초를 찾아 훈련 중인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학교 측과 육상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정형 부회장은 “모든 스포츠의 기본인 육상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체육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 관계들의 노고에 헛되지 않도록 김민주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육상연맹도 꿈나무들이 엘리트 선수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PEOPLE

2025년 9월 5일 금요일



광주시, 청렴캠페인 ‘청렴충전소’ 시민·직원 800여명 참여

광주시는 4일 시청 시민홀에서 청렴캠페인 ‘청렴충전소’를 열고, 청렴한 조직문화와 시민사회 확산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공직자,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나눔, 청렴 다짐 메시지 작성, 인생네컷 사진 촬영, 홀드스틱 체험, 미니 양궁 챌린지, 청렴나무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청렴 한 잔’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커피 부스에서 커피를 나누며, 청렴에 대한 공감과 다짐을 공유했다. 또 ‘청렴나무’에 부착된 직원들의 다짐 메시지는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커피 나눔을 함께하며 “청렴은 시청 운영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토대”라며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9월 첫째주 청렴주간을 맞아 전 직원이 평등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청바지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존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 줄임말) 데이를 ‘청렴축제’로 확대 운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간부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청렴라이브 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5일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메시지 등을 공유하는 상호존중의 날, 함께하는 청렴데이(DAY)를 운영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기초질서 확립 합동캠페인

광주 서부경찰이 어린이 등곳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신암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곳길 기초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부경찰을 비롯해 광주 자치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광주 서부재향경우회, 신암초등학교 등 협력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어린이 안전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건다’를 적극 홍보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회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숙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몰래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부음 ▲윤재순씨 별세, 이준석·영주·연수·희수·서윤씨 모친상. 정신(전남대학교병원장)·김재형·송승주씨 빙모상=3일. 광주시 서구 풍서좌로 237 VIP장례타운 VVIP201호. 발인 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영락공원. 062-521-4444.

운세 (음력 7월 14일)

쥐 48년생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는 날
60년생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말 것
72년생 열심히 해나가면 승진은 내 것
84년생 지인의 권유나 동업체력은 거절
96년생 작은 것에 만족해야 건강에 좋다

토끼 51년생 희망적인 약속은 이뤄진다
63년생 그 동안 어려웠던 일이 풀려 나간다
75년생 평소 원하던 일에 기회가 온다
87년생 손해난 일은 과감히 잊자
99년생 선택하고 일을 도모하면 어렵겠다

말 54년생 주변사람과 일을 도모하면 성공
66년생 노력에 비해 승진 기회가 없다
78년생 새로운 일보다 하던 일을 하라
90년생 직장 사직하면서 동업은 금물

돼지 57년생 유혹 하더라도 용하지 말라
69년생 작은 일에서도 감사하라
81년생 추진하고 있는 일에 좋은 결과
93년생 언되는 일에 집착하지 말 것

소 49년생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다
61년생 유익하지 않으니 포기하라
73년생 진실과 용기에 대해 조안하라
85년생 지인들과 함께 차랑에 동승하지 말라
97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송 52년생 의견이 맞지 않으니 갈등이 증폭
64년생 알아서는 안될 비밀을 노출해 버린다
76년생 좋은 문서들과 집으로 방문한다
88년생 아직 때가 이르므로 겸손해야 한다

양 55년생 예감이나 직감이 맞아 떨어진다
67년생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79년생 자동차나 길거리를 조심하라
91년생 투자 계획이 있다면 실천하라

개 58년생 금전 유통이 막히고 손재가 있다
70년생 좋은 일이 있으나 교통사고 조심
82년생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날
94년생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장거리 여행을 다음으로 연기하라
62년생 가로막는 장애가 없을 것이다
74년생 일도 투자도 쉬었다 하라
86년생 몸과 정신이 지치고 상처 투성
98년생 재물이 생기나 관재를 불러온다

뱀 53년생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털어 놓아라
65년생 일단 버리고 얻어지는 실속이 없다
77년생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89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될 것

원숭이 56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게 된다
68년생 지인으로 인하여 새로 시작한다
80년생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
92년생 훌륭한 아이템도 헛수고에 그친다

돼지 59년생 이익의 증가가 보이는 시기
71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
83년생 어차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95년생 극복할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